

# 정책검증 실종·흠집내기 난무...배심원제 실효성 의문

민주 통합특별시장 권역별 심층토론회

3개 권역 토론회 내내 자질·책임론 충돌  
정책 논의 부족 구체적 실현방안 미흡  
“거짓말 그만” 후보간 네거티브에 집중  
전남 의대·주청사·전기료 등 공방 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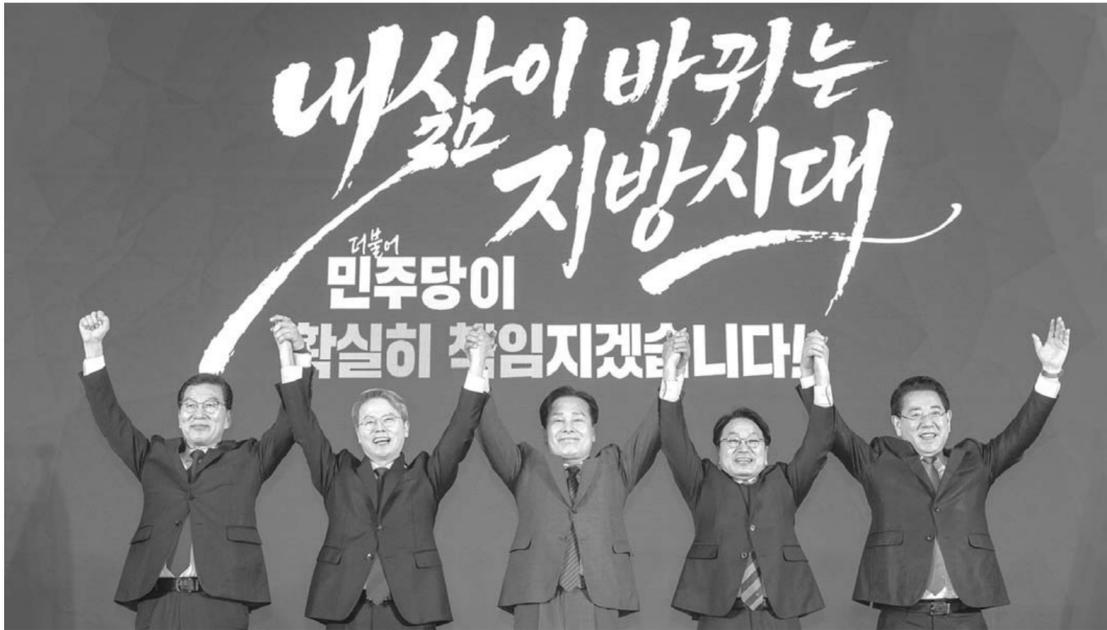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선출을 위해 처음 도입한 정책배심원 토론회가 27-29일 전남 동·서부권, 광주권에서 3일간 열렸으나 정책 검증보다는 후보 간 공방·흠집내기가 이어지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권역별로 진행된 토론회는 27일 전남 서부권(목포), 28일 전남 동부권(순천), 29일 광주권에서 열렸으며 신정훈(본경선 기호 1번)·민형배(기호 2번)·주철현(기호 3번)·강기정(기호 4번)·김영록(기호 5번) 후보가 참석했다. 토론회는 각 후보가 정견을 발표하고 배심원단과의 질의응답, 후보 간 주도권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부권 토론회에서는 반도체 투자 유치와 에너지, 산업전락을 두고 시작부터 신경전이 벌어졌다. 민형배 후보는 김영록 후보의 투자 유치 실적을 문제 삼으며 “5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유치 공약을 했는데 지난 8년간 투자 유치 실현율이 낮다는 비판이 있다”며 “1년 이내에 실제 착공이나 투자 확보까지 가능한 기업과 액수를 공개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는 “투자 유치 실현율을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보면 많다. 지난해에는 LS전선 투자도 이뤄졌다”고 말하자, 민 후보가 “그만 하세요”라며 말을 끊었다.

이에 김 후보가 “말을 끊지 말라”고 항의했고 민 후보는 “반도체 투자 유치를 말씀드렸는데 다른 말씀을 하셔서 끊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권역별 정책배심원 토론회가 29일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에서 열린 신정훈·민형배·주철현·강기정·김영록(사진 왼쪽부터) 경선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영권기자

에너지 정책과 산업 전락을 두고도 이견을 드러냈다.

민 후보는 “100원 전기”를 언급한 뒤 전기요금 인하를 통한 산업 유치를 강조하며 전력공사 설립을 제시했으며, 신정훈 후보는 “지역에서 발전된 지역의 에너지를 지역에서 사용하자”며 RE100 산단 확대를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전기료 인하로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했고, 김 후보는 “분산에너지 특구로 인공 지능 산업으로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철현 후보는 “전력계통망 포화로 생산한 전력을 보내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전력망 문제를 강조했다. 하지만 구체적 실현 방안을 둘러

싼 논의는 이어지지 않았다. 동부권 토론회에서도 공세 중심의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의대 정원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정점의 중심에 섰다.

민 후보는 “특별시장이 권한도 없는데 (순천 의대) 발원으로 서부권에서 소란이 일었다”며 강기정 후보를 겨냥하자, 김 후보는 “민 후보와 같은 생각이라면 통합이 돼도 아무 일도 못한다. 의대는 100명으로 목표도 순천이든 한 군데 정해야 한다”고 맞받아 쳤다.

김 후보는 민 후보를 향해 “순천에 (정원) 50대50 2개 대학 만들고 병원도 2개 만든다고 하고 통합도 4년 뒤에 하자는 등 대통령 뜻하고 전혀

반대된 이야기를 한다”며 “마치 의대가 2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희망고문이고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민 후보는 “거짓말 좀 안 하시는 게 좋겠다”며 “의대는 통합대학의 의대 1곳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양 캠퍼스 체제로 신입생을 모집해 따로 교육하는 시스템”이라고 반박했다.

주 후보와 신 후보는 전남의 인구 감소 문제를 언급하며 “(인구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라”고 김 후보를 압박했고, 김 후보는 “도지사 한 사람만의 책임이 아니다. 정부 정책의 구조적 문제가 크다”고 반박했다.

광주권 토론회에서는 공방의 수위가 더욱 높아

졌다. 김 후보는 민 후보를 향해 “토론회나 연설 때마다 16년간 대통령의 절친이라고 말씀마다 자랑하고 있는데 광산구청장 시절 대통령과 소통해 광주·전남을 위해 뭘 했는지 말해 달라”고 공세를 가했다.

이에 민 후보는 “절친이라고 한적 없고 정치적 동지라고 했다”며 “광산구청장 시절 서로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혁신적인 정책을 많이 내셨던 그런 사이”라고 반박했다.

광주-나주 광역철도 노선을 둘러싼 논쟁도 펼쳐졌다.

김 후보는 “시민단체가 나주 노안 경우 기존 선 활용안을 제안한 것과 관련, 민 후보가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반영할 계획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민 후보가 “시민 의견을 잘 반영하겠다는 것”이라고 하자, 김 후보는 “시민단체가 말하니까 좋다고 받은 것인데 제발 인정할 건 인정하라. 누가 지적하면 자꾸 변명해서 거짓말을 날고”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도 “광주-효천-나주까지 가는 선은 이미 예타 중이다. 예타 중에 있는 것을 어떻게 바꾸라는 말인가”라고 가세했다.

신 후보는 농어촌 기본소득 공약과 관련, 김 후보에게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라고 물었고, 김 후보는 “현재 신안·곡성에 매일 1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점차 확대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신 후보는 “몇 곳에 어떻게 하겠다는 지 몰랐는데 전혀 대안 없이 자기도 하겠다고 말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재정 인센티브를 활용해 할 수 있다”며 “좋은 뜻으로 말해라. 억지로 말하지 말라”고 응수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권역별 토론회가 정책배심원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공방 중심으로 흐르며 세 대결 양상만 재확인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변은진기자

## 민주 선관위, 민형배 ‘득표율 호도’ 게시물 삭제 지시

신정훈 “알박한 눈속임에 철퇴 내리”

진보 이종욱 “자격미달...용퇴 결단을”

민형배 “게시물 삭제...징계 사실아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남 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득표율 논란’과 관련해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광

주 광산) 측 홍보물(카드뉴스)에 대한 시정 조치를 내리면서 후보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결국 진실이 승리했다”며 “민주당 중앙당 선관위가 마침내 민형배 후보의 ‘여론조사 득표율 호도’ 논란에 철퇴를 내렸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중앙당 선관위가) 해당 게시물 즉

각 삭제는 물론 “33.4%가 예비경선 득표율이 아닌 지난 1월 광주시민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임을 명시해 정정 안내문을 올리고 당 선관위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의원은 “처분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조차 입을 모아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성토했으나 현행 당규상 1차 처분 수위가 경고나 주의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알박한 눈속임으로 당원과 시민을 기만하고도 도리어 자신이 피해자인 양 코스프레한 민 후보의 후안무치함은 정치적으로 저버린 행태”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 의원 측은 민주당 예비경선 직후 ‘예비경선 통과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압도적 지지’, ‘33.4%’ 그래프가 담긴 카드뉴스를 제작, 배포해 이를 두고 예비경선 득표율을 연상시키며 유권자를 혼동하게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신 의원 측은 민 의원 측의 카드뉴스 홍보 행태를 민주당 선관위 신고센터에 신고했으며 지난 26일 관련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진보당 이종욱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는 보도자료를 내 “(민 의원은) 통합 특별시의 첫 시장 후보로 자격 미달”이라며 “특별시의 미래를 위한 용퇴를 결단하시라”고 직격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이날 목포에서 열린 민주당 권역별 정책배심원 심층토론회에서 “(당 선관위에서) 우리 쪽 게시물도 틀렸다고 한 게 아니라 오해가 생길 만하니 주의하라는 정도였다. 해당 게시물은 이미 내렸다”고 해명했다.

또한 민 의원 측은 “일각의 ‘민주당 중앙당의 징계를 받았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변은진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람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상가, 사무실(특)임대]**

- 광주시내전역 대로변 최고요지
- 1층점포/2-10층사무실 평수다양
- 통건물: 300평/500평/1,000평/4,000평까지다양
- 특혜: 6개월무상(일부)/집기제공/보, 월세최저
- 승강기, 주차뺑뺑

**[특수매물]**

- 상호물물교환(웃돈도 드릴 수 있습니다)
- 감정가, 공시지가이하 급매물도 있습니다

**[구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내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돈	빌려준돈
공사대금		투자금
장비대금		약정금
전세금		임대료
부도어음		구상금

**받아 드립니다**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안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 문의 062)222-1095, 1096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 컴퓨터
- FAX
-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 전산소모품
- 레이저(토너/드럼)
- 카드리지
- 각종 잉크류
- 복사용지
- 팩스용지
- 판매
- 임대
- A/S

**T.375-5880**